

##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명 :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일 시 : 2019. 10. 14.(월) 17:00
- 장 소 :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장
- 참석자 : 김용관(위원장), 박은미(위원), 김원중(위원), 이춘태(위원), 정남형(위원), 윤현식(위원), 정진임(위원)
- 배석자 : 정은영(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안 건 :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2차)

○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공모를 해서 선출이 되긴 했는데 정확한 틀이 없었습니다. 만들어간다는 심정으로 구의회 의원님들과 심사위원들이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 △△△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제2차 심사의 건입니다. 계획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11일 1차 심사위원회와 동일하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 △△△ 위원장 :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은 오늘 여행사 대표가 안 오셔서 행정복지위원장님 위주로 질의응답 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 경과와 예산, 그리고 출장경비 범위 내 일정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출장경비 범위 내 일정 수행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출장 국가, 출장기관, 출장인원, 출장경비, 대행업체 선정은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출장 일정 선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로알오디세이투어가 선정된 후, 의원님들 간 세 차례 사전간담회를 통해 방문지를 선정하였고 대행업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장 일정이 무리 없이 소화 가능하도록 논의를 거쳐 내실 있는 출장계획이 되도록 작성하였으며, 출장경비 내 통역비, 섭외비 등 일정 수행을 위한 경비 모두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직원에 관련하여서는 사무국 직원 2명이 동행 예정이며, 수행직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국외 여행규정에 따라 은평구청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 위원님들이 일정이나 경비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 위원 : 지난번 회의 때 일정에 대해서는 회의했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수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계속 고생은 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특별하게 반대하는 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일정에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소각만 한다고 했죠. 근데 소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원래 자원 국가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모르고, 지금 저희가 가는 거는 소각장이예요. 그리고 왜 행정복지에서 소각장을 가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아마 재무분과위원이 소각장 때문에 한 분이 가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싱가포르를 자원순환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싱가포르는 물의 국가입니다. 물을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 회의에서 싱가포르는 무조건 소각을 한다고 했는데, 소각만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자체도 2015년부터 슬러지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대규모 시설을 잘해놔서 견학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게 왜 행정분과에서 굳이 여기 재무분과의 업무를 해야 하는지 하고, 그리고, 왜 이 소각장도 시설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보다 상암동 가면 거기 시설이 훨씬 낫습니다. 일부러 외국에서 견학도 오구요. 이 부분 하나는 행정복지분과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싱가포르 일정, 혹시 싱가포르 때문에 다른 일정도 이렇게 잡은 거 아닌가요?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말레이시아에 있는 시설하고 비슷한 시설을 한군데 또 가더라도요. 쿠알라룸푸르하고 조금 다르다고는 하는데, 싱가포르에는 사실 가는 게 주가 자원순환센터고, 자원순환센터가 일정이 길어지면 다음에 되어있는 일정은 안 갈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굳이 재무분과에서 할 업무를..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 △△△ 위원 : 위원장님, 지금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 위원장 : 위원님께서 본론을 바로 들어가셨는데, 그래도 새로운 방침도 있고 하니깐 간략하게 한번 훑고 가시지요. 행정복지위원장님 계획과 출장 목적, 동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보충자료에 있는 방문지를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저희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선택하게 된 게 말레이시아는 은평구에 지속 가능한 건강한 도시 은평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컨셉으로 하였고, 싱가포르는 무궁한 볼거리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해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진화와 상상을 거듭하는 도시로 은평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 선정했습니다. 출장목적은 교육과 청소, 행정 분야의 선진국가도시인 싱가포르와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등을 방문해서 복지, 문화, 관광, 교육, 자원순환 각 분야의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은평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출장 동기를 보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복지시설 방문을 통해 아동, 어르신, 여성 각 분야의 우수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각국의 문화관광 중심지와 싱가포르 관광청 방문을 통한 문화관광 마케팅 분야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축제인 파발제, 누리 축제 활성화 및 은평 한옥마을, 북한산 둘레길, 불광천 등의 관광코스 조성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견학을 통해 선진교육시스템 및 독서문화복합시설을 경험한 후, 우리 구의 7개 공공도서관을 교육, 문화, 예술 복합공간으로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또한, 자원순환시설을 방문하는 이유는 은평구 현안에 재무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도 포함된다 생각하여 자원순환시설을 방문하여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폐기물 처리 과정 및 앞으로의 정책변화를 경험하고, 우리구 환경 플랜트 추가 활용방안 비교분석과 현안 과제인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무국외출장 후 효능이나 효과를 보자면, 선진도시의 복지 시설견학을 통해 복지 공간조성 및 우수 복지정책을 확인한 후, 출장 이후에는 은평구의 관련 복지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비교분석으로 현재 고령사회에 대비한 은평구의 어르신 복지정책 선진화 등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업단지에서 변모한 생태 공간 및 랜드마크가 위치한 공간 등 대표문화 관광지를 확인한 후, 싱가포르의 관광청의 21세기 선도적 마케팅 전략, 각종 여행 정보제공 코스 개발 등을 활용, 우리 구의 문화관광 진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국가경쟁력에 기반인 국가 교육정책 및 독서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국립대학교 및 국립중앙도서관을 견학한 후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로 운영 중인 우리 구의 교육정책 및 문화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서 구립도서관의 공간조성 및 개발방안 또한 도모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의 폐기물 과정을 견학한 후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폐기물 제로화를 발표한 싱가포르의 순환경제 정책을 확인한 후 우리 구의 앞으로 미래의 자원순환정책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 △△△ 위원장 : 보충자료 중 2페이지부터 위원장님이 개괄적으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이 구체적 사안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주민 복지분야는 2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스와미흠 노인복지시설, 티라타나 웰페어 소사이어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1989년 설립된 스와미흠은 자발적 복지기관으로 노인들에게 통합요양 간호서비스, 주거 치매 치료, 치매 데

이케어, 주간 재활센터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 시설입니다. 이곳은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 의료 및 가정방문 서비스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찾동과 해당 시설을 비교하여 견학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티라타나 웰페어 소사이어티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게 피난처, 교육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자발적 비영리단체로 광범위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말레이시아 사회의 기부금으로 충당되며, 고아원, 아동진료소, 어르신 요양원, 여성보호소,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국의 복지시설 방문을 통하여 소외계층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현재 포화상태인 우리구 복지시설과 비교, 분석하여 사업구상 및 시설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7년도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노인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여 2045년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복지시설과 비교분석을 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보충자료에 대하여 복지 분야, 관광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분야별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까?

○ △△△ 위원장 : 네. 5개 분야 정도 됩니다.

○ △△△ 위원 : 저는 총평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보내주신 보충자료를 보고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번 계획서를 보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묶어서 국내 지자체가 연수한 게 상당히 많이 축적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갔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서울 강서, 경기 고양, 경기 부천, 대구 남구, 북구, 경남 창원, 경기 평택도 갔었습니다. 갔던데도 비슷하고, 목적, 동기도 비슷합니다. 은평구 특색 북한산 둘레길, 불광천 말씀은 하셨지만 다른 곳도 비슷하게 갔습니다. 보충자료 내용이 제가 조사한 다른 지자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민복지방문, 스와미 흥, 티라타나 웰페어 소사이어티, 주룽 새공원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곳이 다 있는데, 타 지자체 보고서와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은데, 기초단위만 7개, 광역 한 군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곳과 이번에 기획한 보충자료 이외에 어떠한 것이 은평구에 다른 보고서에 없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저도 타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유사점도 있지만, 저희는 다른 곳을 방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확인은 어렵지만, 이점은 우리 지자체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할 곳을 다른 지자체가 갔다고 해서 저희가 방문하지 않고 참고만 할 수 없으니, 방문해서 저희 구 현실에 맞는 것과 비교해서 전문성이 있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위원 : 출장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하시죠?

○ △△△ 행정복지위원장 : 네

○ △△△ 위원 : 그 보고서하고 기존 다른 자치단체의 보고서와 차별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기대해도 된다는 거죠?

○ △△△ 행정복지위원장 : 글썬요, 제가 아직 가지 않았는데 차별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각자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는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어렵습니다.

○ △△△ 위원 : 그래도 제가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하려면, 인터넷이나 온라인자료나 다른 지자체에서 나온 것과는 다른 은평구만의 뭔가 독특한 무엇인 것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돼야..

○ △△△ 행정복지위원장 : 독특한 것이 어떤 것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 △△△ 위원 :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 △△△ 행정복지위원장 : 네

○ △△△ 위원 : 제가 대신 갈 수도 없고, 제가 조사한 거를 다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A4 47페이지나 되는 분량을 읽어드릴까요?

○ △△△ 행정복지위원장 : 어느 지자체인가요?

○ △△△ 위원 : 2014년 서울 강서구, 2017년 경기 고양, 2016년 경기 부천, 2014년 대구 남구, 2018년 대구 북구, 2015년 경남 창원, 2014년 경기 평택, 2013년은 경기도 의회에서 다녀왔습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위원님, 저도 봤지만, 비슷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방문할 주릉 새공원 같은 경우는 공통적일 수 있는데, 다른 곳은 공통적인 점을 못 봤습니다.

○ △△△ 위원 : 어떤?

○ △△△ 행정복지위원장 : 복지시설이 같았나요? 제가 본 것은 없었습니다.

○ △△△ 위원 : 물론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같지는 않겠지만, 다른 곳의 경우는 리아모이 올드에이지 홈 복지시설, 이런 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이 겹치는 데가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 복지시설에 갔다 온 결론을 보면 여기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개요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개요와 큰 차이가 없는 곳을 굳이 볼 필요가 있는지 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지금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고, 말레이시아 사회의 전 범위의 기부금으로 총당되는 이 부분도 다른 보고서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 △△△ 행정복지위원장 :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 위원 : 기부금으로 총당되는 것과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을 만든다고 한다면 시스템이 완전히 다를 텐데

○ △△△ 행정복지위원장 :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 △△△ 위원 : 우리도 기부금으로 하나요?

○ △△△ 행정복지위원장 : 기부금으로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구,시비로 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 △△△ 위원 : 그런 식으로 보고 오시면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은평구만의 독특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 행정복지위원장 : 있다, 없다는 다녀와서 보고서에 넣을 때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왕에 다른 지자체와 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

으면 굳이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가 은평구의 특별하게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으나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겠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요?

○ △△△ 행정복지위원장 :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기대효과는 각각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 위원 :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문을 하는 건데 저보고 그럼 기대효과에 대한 준비를 해오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이 그런 일을 하는 자리인가요?

○ △△△ 행정복지위원장 : 심사위원님께서 심사하시는데 위원님께서 다른 효과가 머가 있냐고 질문을 하시니..

○ △△△ 위원 : 그래서 혹시 있냐고 제가 모르니 여쭙보는 겁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저희도 이런 효과를 가지고 다른 지자체와 다른 우리 은평구만의 현실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을 접목해야 할지는 현장을 가보고, 의회 정책을 의원님들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좋겠죠. 하지만 어떤 것을 봐야 할지는 좀 더 논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 위원님의 의견은, 제 생각이지만, 차별성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여러 지자체가 견학을 가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개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어차피 국가 돈을 들여서 가니깐 우리 은평구만의 차별적인 보고서를 해올 수 있느냐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일단 싱가포르에 복지정책을 보러 가시는 건데, 싱가포르의 복지정책이 우리보다 선진정책이기 때문에 보러 가시는 건데,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선진정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위원장 : 싱가포르 복지정책 수준이나 시설이 더 나은 게 있느냐, 아니면 벤치마킹할 게 있느냐, 좀혀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정책의 수준 자체가 낮다 높다는 것보다는 현지 환경에 맞는 정책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높은 복지정책을 찾아서 수준이라던지 환경이 맞지 않는데 복지만 높다 이걸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제가 질문을 했는데 위원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싱가포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제도나 정책을 보고 저런 정책이 있구나 하고 배워와야 하는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정책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싱가포르에 가서 구체적인 복지정책 어떤 것을 보려고 하는지 궁금하고, 처음 가시는 스와미 홈이라는 곳이 자료가 많지는 않고, 이게 어떤 시설인가요? 종교를 바탕으로 봉사하고 기부하고 후원자를 통해 후원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조사해보니 나왔는데 그런 곳을 탐방해서 우리가 무엇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선진국과 저희의 정책을 비교하여 어떤 정책을 잘할 수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이 정책은 맞다 안 맞다 라는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탐색 및 수집을 했지만 자세한 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고 하셨는데 싱가포르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것들은 조사가 되어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은 특히 노인 정책은 이렇게 펼쳐진다, 그 속에서 스와미홈은 어떤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라는 것이 나오고 우리나라 실정이 이렇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정확한 것은 수집중에 있습니다.

○ △△△ 위원 : 이미 계획서상에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 행정복지위원장 : 이 분야는 전문적인 의원님이 컨택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개요와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고...

○ △△△ 위원 : 도대체 어떤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는 건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간호 서비스, 주거, 치매 데이케어에 있는데 이곳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고 우리 은평구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잘 운영되고 20년 된 노인 정

책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곳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 위원 : 그러면 스와미훅을 운영하는 방식이과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보통의 방식, 이 두 가지라도 비교해본 적이 있으신지?

○ △△△ 행정복지위원장 : 가정 의료 및 가정방문 서비스를 또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찾동이 작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는지 관찰하고 싶고, 치매 데이케어센터가 은평구에는 7개 복지관이 있고 우리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비교하고 싶습니다.

○ △△△ 위원 : 거기 가정방문 사업하고 우리 찾동하고 어떤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비슷한 점이 있다기보단, 가정방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걸 잘되고 있는지는 저도 판단이 안 돼서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싱가포르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도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싱가포르 하면 복지가 제일 잘된 국가는 아닙니다.

○ △△△ 위원장 : 싱가포르가 지금 국민소득이 6만 불이 넘고 우리는 3만 불이 넘어가는데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6만 불 수준에서 복지정책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 체크하셔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제가 작년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일본에 2박 3일 동안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스와미훅 같은 비슷한 곳이 있었는데, 복합시설이죠. 데이케어, 요양병원, 가정방문 이런 것을 다하는 곳이었는데 다 보는데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빠짐없이 다녀도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스와미훅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계획되어 있는겁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2시간에서 3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잡혀있을 텐데요.

○ △△△ 위원 : 아니요, 오후에는 다른 곳을 가기로 하였고, 국립대학을 가시고 오전에는 스와미 훅 노인복지시설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9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12시까지 하면 3시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3시간은 한번 투어 잠깐 견학하고 기관 개요 듣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중에 한 개만 해도 그걸 설명 듣기가 빠

듯한데 다섯 개의 서비스형태를 두세 시간 안에 설명을 듣는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공식방문,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 방문입니다. 아래의 방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속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방문의 계획이 늦어졌을 때는 나중에 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 위원 : 내실 있는 연수가 되려면 공식방문 일정을 전체로 잡고, 그때 변수가 생겼을 때 단순 방문일정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 형태에서는 단순 방문형태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전체 프로그램에는 들어가 있고 계획서에도 나올 거고, 평가할 때도 얼마만큼 계획이 맞추어서 얼마만큼 집행되었는지 볼 텐데, 그것도 평가 기준의 하나가 될 겁니다.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오전에 방문시간이 늦어졌을 때 오후에 식사하고 다시 방문해서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 방문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여행사에서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해 방문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공식 방문지는 차질없이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후 방문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던지 이런 시설이어도 방문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놓은 겁니다. 여행사가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일부러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 군데만 방문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 기관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오전에 공식방문을 하면서 늦어지면 늦어지는 데로 오후 방문은 한 시간이 됐던 삼십 분이 됐던 무조건 방문 할 겁니다.

○ △△△ 위원 : 지난번에 여기 정확하게 적혀있는데 스와미홀을 1시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목요일 그날 다른 일정이 들어가 있어요. 자원순환, 그대로 얘기하면 스와미홀이 주가 되면 자원순환은 안 간다는 겁니까? 그때 얘기할 때는 1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 △△△ 행정복지위원장 : 저는 1시간이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 △△△ 위원 : 여기 그럼 제가 왜 한 시간이라고 되어있나요, 한 시간이라고 이것도 추가된 거예요.

○ △△△ 행정복지위원장 : 어떻게 거기를 한 시간에 방문하겠습니까?

○ △△△ 위원 : 지난번 회의 때 여길 왜 가냐고 하니 앞에 말레이시아에 비슷한 시

설이 있는데 그곳이 원래 주고, 여기는 추가로 나중에 싱가포르도 비교해보려고 간다고, 여기에 메모 다 있어요, 하나도 안 버리고, 그래서 서류랑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한 거 낙서한 그 하나까지 다 가지고 왔는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보충자료를 보시면 안 되고, 일정을 봐주십시오.

○ △△△ 위원 : 그때 질문했을 때 여기 기록에 하나하나 다 적고 제가 낙서했다고..

○ △△△ 행정복지위원장 : 위원님 그거는 녹음했으니까 나중에 확인할텐데 한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 그 부분은 저도 항상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8시간 해도 뽀뽀한 일정인데 오전 시간에 다 투자해도 4시간밖에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도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8시간 뽀뽀이 돌아가도 어려운 자리를 오전 4시간에 안 되면 쉽게 말해서 오후 일정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융통적으로 해도 혹시 그게 주가 되는 게 부족한 게 아닌가 하시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공식방문을 할 때는 약속이 돼서 가는 겁니다. 아래쪽의 일정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전 일정이 소화되면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방문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 위원 : 공식 일정은 방문 확인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공식방문 확정된 곳들이 몇 시간으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시간으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8시간 동안 그냥 연수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네. 현지 사정에 따라서 장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설명을 해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 △△△ 위원 :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위에 있는 거는 공문처리가 돼서 공식적으로 잡혀있는 거고, 밑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공원을 방문해서 시설에 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 △△△ 위원 : 예컨대, 스와미홍 노인복지시설을 오전에 가고 오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있고 관광시설이나 가시고 하는 게 어쨌든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듣고 나니 보충자료에 교육 행정 분야 방문지 해서 교육 행정 분야의 관점을 복지시설하고 같은 비중으로 두신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국립대학 방문해서 교육, 도서관, 은평구에 필요한 것들을 조사하시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서 도서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오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거보다는 3박4일을 가든 한군데 틀어박혀서 그거만 다 보시고 오셔도 되는데, 그런데 공무국외 출장규칙 5조에 따른 별지를 보니깐 이상한 항목이 있어요. 하루에 한 개 이상 기관방문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가져서 그러신 것 같은데, 물론 나중에 이거 고치셔야 할 것 같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윗줄 밑에 두 번째 것들은 사실상 보충자료만큼의 기대효과, 목적의식이 반영될 수 있을까, 말씀을 듣고 나니 의문스럽습니다.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제가 의원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모시고 가고, 저도 비교 시찰을 몇 번 다녀왔지만, 그에 대해서 기관방문이라든지 현지 목적지, 사실 그 시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 좋은 관광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교 시찰 가는 도중에서는 기관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했고 일정을 소화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학습효과라든지 은평구에 맞는 보고서를 적절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달라지는데, 좀 전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은 짧은 시간에 가서 정말 심도 있는 시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신 건데, 답변하신 건 한두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심도 있게 들어가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현지 사정상 설명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면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 △△△ 위원 : 설명이 많다는 것은 가신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미뤄질 수는 있는 건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에 짜여진 대로 다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처음 질문과 배치가 되지 않냐,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이라는 거죠.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그건 아닙니다.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 10시에 방문을 해서 2시간 안에 점심시간이 다됐는데 두 시간 안에 설명을 다 못 들었을 경우 오후에 식사하고 나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 4시가 됐든 5시가 됐든 방문지는 다 방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위원님 국내 비교 시찰을 가보더라도 각자가 많이 머무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학습한 후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장 : 구의원님들이 각자 전문분야를 정해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그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아닙니까?

○ △△△ 행정복지위원장 : 네.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 위원장 : 전체적으로도 하시겠지만 가시는 의원님들이 한 분야를 맡아서 가면 그분들이 준비를 더 많이 하시면 모든 시간이 절약될 거 아닙니까?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국내 시찰이나 일본에 가서 견학해 본 결과도, 물론 한국하고 실정에 맞춰서 비교를 많이 하는데 꼭 그 장소에 오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둘러보고 이 정도면 우리 구에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사실 둘러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 계신 분들과 토론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난 회의 때 전문통역자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고 심사위원들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공식 방문지에는 전문통역사가 있습니다.

○ △△△ 위원 :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견학시간이 중요하다 오래 있다 하는 게 견학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 △△△ 행정복지위원장 :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관심 분야가 다 있습니다. 어느 분은 문화, 교육, 노인,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 분야가 있으니 그 부분에 중

점적으로 저희들이 토론한 후에 도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오늘 회의 후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해서 두 세 차례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논의 후 각 기관별 질문지를 여행사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역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 주 내로 일정을 세 차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 다음은 문화 관광진흥 방문지입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머라이언파크의 경우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태를 가진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은평구에는 평화의 공원과 있고 각 동네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은평구에도 독특하게 만들면 관광객들을 유치했을 때 볼거리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싱가포르 관광청은 21세기 세계관광수도를 꿈꾸는 싱가포르를 마케팅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언어, 날씨, 교통수단, 축제와 행사, 식음료, 쇼핑, 숙박, 여행자 필수정보까지 여행에 필요한 가지각색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은평구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룽 새공원은 세계 최대의 새공원으로 싱가포르의 심장인 주룽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공업단지였던 주룽 타운을 자연 친화적인 생태 공간으로써 변모시켰으며, 새 병원, 조류연구보존 센터 등을 함께 운영하여 공업단지 및 도심 속 녹지공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여 은평구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보기 위하여 방문할 예정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독립광장 메르데카 광장은 말레이시아가 독립한 1957년 8월 31일, 영국 국기를 철거하고 말레이시아 국기가 게양된 역사적인 장소로 해마다 말레이시아 국기와 각 주의 깃발이 게양되고 있으며, 해마다 독립기념행사 등이 치러지고 있는데 은평구에도 독립기념행사나 은평평화공원을 관광지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고 올 예정입니다. 역사 문화도시 말라카는 말레이반도 끝자락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어촌마을로 향료, 비단, 담배 등이 거래되는 주요무역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 등 동서양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흔적이 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고 있어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선진도시인 싱가포르의 앞서가는 관광청의 문화 관광진흥 정책과 여행 정보제공서비스, 주요거점 방문객 센터 운영 등의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알려지지 않은 우리구 문화, 환경, 공간, 보유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방안과 홍보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의 대표적 문화 관광지를 방문하여 관광객의 발길을 끄는 요소를 확인하고 관광 대국 싱가포르의 관광청을 견학하여 마케팅 분야 선진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구 대표축제인 파발제, 누리축제의 활성화와 은평 한옥마을, 북한산, 둘레길, 불광천 등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우리

구 대표 관광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는 국립공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현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되고 있으며, 기존 차원에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례도 확인하고자 방문하고자 합니다.

○ △△△ 위원 : 제가 오늘 회의를 꼭 와야 할 것 같아서 무리하게 일정을 빼고 와서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사전에 첨부해 주셨던 자료 모두 검토했고, 오늘도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먼저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도 될지요?

○ △△△ 위원 :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보류라던지 무슨 그런 다른 사안이 그러시다면은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던지 보충자료라던지 결론을 어떻게 내놓고 가실지 몰라서 그러는데 보류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 △△△ 위원장 : 우선 위원님 서류를 받고 위원님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 위원 : 일단 보류 의견은 아닙니다. 일정을 겨우 잡아서 전체회의를 수요일까지 결정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보류를 더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보류 의견은 아닙니다.

○ △△△ 위원 : 예를 들어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것도 수정하면서 하지, 무조건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반대다 하면 그거는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 위원 : 근데 심사위원회로 참여를 했는데 의견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의견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추가적인 과정을 통해 의견을 물어볼 순 있는데 지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 △△△ 위원 : 우리 심사위원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저는 이런 게 심사위원을 압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근거에 있는걸 보시면 7항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한다고 하면서 출장의 필요성이라던지, 적합성, 타당성, 적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질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거시적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수정해주시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

이 가져야 할 지향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첨부해 주셨으면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 위원 : 일단 의견을 다 적긴 했고, 수정의 시간이 있었고, 오늘 2차 회의입니다. 수정은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 드렸다고 생각하고, 각자 위원들이 의견서를 내고 취합이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적격 부적격에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서를 빼곡히 채웠는데 혹시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 위원 :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셨듯이, 저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견본이나 샘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후에라도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하는 만들어나가는 틀을 만들고자 해서 첨언을 드린 것이지, 개인의 결정에 대해 압력을 넣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보지 못해서 그런데 내용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런 것이 빠져있다면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 위원장 : 부득이 가져야 하니 혹시 어쩌면 수정의결이 될 수도 있어요. 위원님이 해놓으신 걸 넣어서 수정의결이 될 수 있단 걸 감안해 주세요.

○ △△△ 위원 : 네.

○ △△△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 위원장 :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 △△△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우리 구에 전통시설들 사찰도 있고, 상당히 유명한 사찰들 아닙니까? 은평뉴타운에 금성당, 샤머니즘박물관이 있어요. 혹시 전통 건물이라던가 샤머니즘 같은 거와 연계된 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그런 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역사 문화도시 말라카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고, 저도 진관사, 샤머니즘박물관과 몇 군데를 가봤는데 은평구만의 고유한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계속적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제가 지난 회의 때 두 가지만 봤습니다. 복지와 관광. 여기서 보면 관광이 일곱건입니다. 열두 개 중에. 복지 두 군데 교육 두 군데 자원순환 한곳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자주 갑니다. 세종시와 싱가포르가 자매결연지입니다. 지난 번에 성공한 도시라고 했는데 은평구하고 싱가포르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성공했다는 것은 물을 이용한 관광을 했기 때문이고 은평구에는 물을 이용한 공원이 없습니다. 호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계획하실 때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도 지금 기본인프라가 안 돼 있어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성공한 도시가 아닙니다. 세종시가 싱가포르를 많이 벤치마킹했지만, 우리나라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나면 열두 개 중에 일곱 개가 관광으로 돼 있어서 얘기합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머라이언 파크, 말레이시아 독립광장 이런 걸 설명하시면서 here를 잘 보고 와서 은평평화공원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평화의 공원이 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벤치마킹이 되는 건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그게 좀 궁금하고, 그 다음 역사 문화도시 말라카 보면 알려지지 않은 우리구 문화환경 공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파발제나 누리축제는 지역축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지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축제는 아직 아닌데, 이 지역축제와 이런 축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고려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디엠씨부터 불광천, 북한산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머라이언파크 같은 경우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은평구에도 상징적인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문화관광 쪽은 아니고 교육 쪽이지만 이쪽으로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계셔서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주릉 새 공원을 보면 주릉 석유화학단지를 공원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볼 때 은평구가 공원녹지가 좀 있어서 그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은평구에 공원녹지가 있다고요?

○ △△△ 행정복지위원장 : 공원녹지보다는 공원들 있잖아요. 물빛공원, 평화공원

○ △△△ 위원 : 이게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공원인가요?

○ △△△ 행정복지위원장 : 관광자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어떤 한곳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광을 했을 때 은평구가 꿈꾸는 것이 관광에 대한 것들도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림을 함께했을 때 어떠한 것들

이 있는지 의원님들이 보고 오셔서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 위원 :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보고 오는 것은 찬성하지만, 일단 문화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좀 거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일들이 있는데 여기 가서 방문해서 노리는 기대효과가 우리 자치구에서 수행하기는 너무 거대한 담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우리 현실에 맞게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봤습니다.

○ △△△ 위원장 : 저는 뉴타운에 살다 보니 거기에 국립문학관을 유치했습니다. 은평구 전 주민들이 협력하셔서 유치했고 바로 밑에 고전번역원이라고 있습니다. 진관사에 가면 옛날 한글 창제했다고 추정되는 사가독서상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문화 관광벨트로 한다고 하면 구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가 아니면 나라에서 도와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것은 우리 동네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얻고 있으니, 은평구가 제조업도 없고, 요소들은 있는데 께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가시면 구체적으로 작은 공원들도 하시지만 서울시 돈을 얻어 가지고 우리는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문학관이 들어오고 고전번역원이라는 게 엄청난 기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모릅니다. 세종실록 같은 걸 번역하고 전시합니다. 이런 자원이 있음에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매질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싱가포르를 가면 어떻게 저렇게 관광 대국이 됐나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5페이지에 교육 행정 분야 방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교육 행정 분야 방문지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 국립중앙도서관을 볼 예정입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는 17개 학부가 존재하며 300개가 넘는 세계의 대학들과 유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국제 교육 허브인 싱가포르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 지하 3층 지상 16층의 규모로 위치하여 독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교육, 문화, 예술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중심지에 독서, 교육, 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되는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공간 활용과 공간 분위기 조성 등 우수사례를 확인하여 관내 7개의 구립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 사업방향 등 우리 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 최상위를 기록하는 싱가포르의 성장동력 중 하나는 교육으로 국제교육의 허브인 싱가포르의 국립대학교와 국립중앙도서관 견학을 통해 선진화된 교육공간과 시스템 등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로 운영 중인 우리 구 교육 방향에 접목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 위원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견학을 해서 거기서 선진화된 교육공간과 시스템 우수사례를 수집해서 우리 은평구에 접목할 수 있는 혁신학교라든가 중등교육과정에 적용한다는 건가요?

○ △△△ 행정복지위원장 : 싱가포르 교육정책을 보면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로 구성된 복합 사회인 점을 고려했을 때 교육을 통한 국민통합 의식양성을 국가 존립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헌법은 각 인종 간의 평등을 규정하고, 말레이시아, 중국어, 타미,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세계화 및 지식기반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실용적인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언어교육을 중시하며, 각 인종 교육언어 외 영어를 필수로 하고 반드시 두 개 언어를 이수해야 하는 이중 언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학제 교육과정은 유아교육 초등 6년 의무교육과 2차 교육 중등교육 1차, 2차 고등교육이 있으며 여기서 잘 길러진 아이들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난양 공과대학,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기술 디자인 대학교, 기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렇게 여섯 분야로 진학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교육시스템에 본받아야 할 점은 초등교육에서 시험을 본 후 중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나누어 초등학교 시험을 보고 중학교에 갈 때도 대학 전과, 전문학교 직업교육으로 나눈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 전 과정에 2~3년 가는 경우 및 잘 길러진 아이들이 폴리텍대 같은 실용적인 훈련과 예술 등 교육이 잘 된다고 하는데, 최종적인 국립대학교에 가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지를 벤치마킹하면서 은평구에 있는 서울혁신지구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교육청과 서울시가 지원하는 자치구로 학교 안에서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서, 학교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마을 방과 후 활동 및 청소년 자치활동을 과제로 삼는 것이 이런 것 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좀 듣고 나서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을 인재개발 하도록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실제로 연수나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면 싱가포르국립대학교가 아니라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같은 경우 다른 어느구 보다 다양한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국의 언어라든지 소통이 되고 한국의 문화나 말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싱가포르국립대학교는 교육학과나 이런 쪽에 사람들을 만나는 건가요?

○ △△△ 행정복지위원장 : 교수님을 컨택중에 있습니다.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직원하고 연결된 상태이고, 저희가 행정복지여서 복지 쪽의 교수님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에 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교수님을 컨택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 고민의 지점이 은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에서 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도 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가서 국가교육정책을 듣고 와서 은평구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국립도서관을 보고 오셔서 은평구의 7개의 구립도서관의 운영방안에 접목하겠다고 하는데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작은 도서관을, 우리 자치구의 도서관을 발전시키려면 비슷한 모델을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형 혁신 교육 방향이 여기서 왜 나온 지 모르겠는데, 서울형 혁신 교육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을과 학교의 협력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가서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무엇을, 저는 오히려 이런 모델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두 세 번 모이셨을 때 나온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21세기가 돼서 책을 가까이하는 정책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책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정책 자체가 책을 가깝게 하고 도서관이 건립되는 지원금은 아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은평구 도서관의 현시점을 보면 가서 책을 가까이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단순히 놀러 가서 아이들끼리 놀고 책을 보고하는 것을 보면 싱가포르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국립도서관이 그런 식으로 잘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이들에게 책을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 △△△ 위원 : 그럼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와는 어떤 접점이 있나요?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도서관에 가보면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노는 자체도 저는 아이들이 발전 방향이고 노는 문화도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던지 집이라던지 밖에 나가서 논다던지 그랬을 경우에 아이들한테는 혁신 교육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라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끼리 잘 놀 수 있는 공간도 혁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 : 사실 지금 교육과 관련한 것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 갈현동에 청소년 쉼터가 개관 했습니다. 지금 초중등단계에서 제일 큰 문제는 학교 밖 아이들입니다. 학교 내에 있는 애들은 다문화까지 다 흡수를 해서 아마 여기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은 은평구가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곳보다 낙후돼서. 그러면 정규교육을 거부했거나 자기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종종 만나는데, 정말 은평구에서 진행하려면 거시적인 것은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있으니까, 작지만 은평구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내를 건너 숲으로라는 도서관이 지역구에 있습니다. 최근에 지었는데 거기에는 책을 읽는 공간도 있지만, 예술이나 문화라던지 학교 밖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나 학교 밖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했을 때 그런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에 와서 놀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놀이문화나 이런 것들을 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고, 지식과 평생학습이 좋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에너지 절약의 핵심인 실내환경과 실내 빛 조절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고 합니다. 은평구에는 물론 정보도서관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같이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고 오고 싶습니다.

○ △△△ 위원장 : 4번 도시계획 분야방문입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도시계획 분야 방문지는 싱가포르 시티갤러리, 푸트라자야 관리청 두 곳을 가려고 합니다. 싱가포르 시티갤러리는 싱가포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도시계획을 볼 수 있는 싱가포르의 유일한 갤러리라고 합니다. 은평구가 개청 40주년이라고 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푸트라자야 관리청은 1980년대 쿠알라룸푸르에 밀집된 개발을 분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연방정부 행정수도를 모색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싱가포르의 과거부터 화려한 건축물들과 문화공간이 존재하는 현재, 개발예정인 미래까지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티갤러리를 방문하여 우리 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되돌아보고, 우리 구의 역사와 미래를 주민들에게 알릴 방안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행정수도 계획사례로 인정받는 푸트라자야 관리청을 방문하여 푸트라자야의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 관리시스템 등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도시환경 개선 방향과 현재 개발 중인 수색, 증산 재개발 구역 및 은평구 미래 도시계획 방향모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 △△△ 위원장 : 수색이 어느 정도 인구로 개발되니까

○ △△△ 행정복지위원장 : 현재 8천 500명 정도 있고 앞으로 2,3만 명 정도 입주 예정입니다.

○ △△△ 위원 : 제가 모두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은평플랜트 아시나요?

○ △△△ 행정복지위원장 : 네

○ △△△ 위원 : 플랜트의 소각용량이 일일 몇 톤 소각하나요?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47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 옆에 동일하게 환경 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동일한 소각로를 설치할 규모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 얼마 내죠? 열지에? 지금 있는 시스템이 사실 여기 우리가 가려고 하는 자원순환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복지를 하는데 갑자기 재무건설에서 해야 될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서 얘기합니다. 저는 왜 재무건설의환경 플랜트와 같은 소각시설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5번 얘기하시는 건가요

○ △△△ 위원 :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플랜트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 다음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 △△△ 위원 : 도시계획 분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장밋빛입니다. 은평이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도시재생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도시 재생모델도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화려한 이런 도시계획을 방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의원님들 사전 좌담회 등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원하고 관광 분야에 싱가포르 시티갤러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싱가포르 과거 미래를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평구에는 북한산과 같이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등산객들을 은평구 관내로 들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하다못해 지나는 쉼터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더라도 그게 은평구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진관사에 보면 보물이 두 점이 있

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요소요소 은평구를 알릴 수 있는 장소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광천으로 해서 한강까지 갈 수 있는 은평구를 관통하는 관광자원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티갤러리를 지을 장소는 없지만 그런 장소를 지어놓으면 은평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 장소를 찾아가기 위해 둘레길이나 등산 후 한옥박물관, 진관동, 그 시설을 거쳐 한강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너무 큰 그림이긴 하지만 은평구를 알릴 수 있는 장소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 △△△ 위원 : 다음 주 재무건설을 보면 그 주가 도시재생이죠? 가는 곳이 폐철도 하이라인과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대부분 공원 쪽입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에서도 겹쳐서 가는 것이 조금..

○ △△△ 위원 : 제가 심의위원이라 변론하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참으려고 하는데, 은평구의 가장 큰 핵심문제가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이것은 지역과 위원회 차원을 떠나서 은평구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정적인 것이 아니고 비록 의원들이 분과는 틀리지만, 은평구 의원으로서 들린다 하는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 △△△ 위원 : 행정위원회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시스템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각 분과별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푸트라자야 같은 경우가 수색, 증산 재개발 구역 및 은평구 미래도시계획에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푸트라자야 같은 경우는 세종시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대규모 신도시 구상이고요, 수색, 증산의 경우는 재개발이지 않습니까? 푸트라자야 관리청에서 행정시스템을 어떤 것을 가져왔을 때 재개발 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는 제가 확 안 와닿습니다. 어떤 것을 가져오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 행정복지위원장 : 여기는 관광의 의미도 있고, 제가 수색, 증산이 지역구다 보니 도시재생과 재개발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그림을 설계하곤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오면 한 분야만 보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재생을 같이 해결하는 시각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 분야가 많다 보니깐아까처럼 관광의 분야로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행정복지도 재무건설처럼 같은 분야 전문적이진 않지만 보는 의원님들에 따라서 각 분야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보고 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 위원장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자원순환시설을 보려고 하는 것은 싱가포르의 일찍이 환

경정책 방향을 뚜렷이 하였으며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 폐기물 처리 및 수처리 산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꼭 행정복지분야가 아니라 은평구민이 같이 가야 할 현안이고 지역 의원님들도 있어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비교분석, 필요성, 미래 순환정책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가려고 합니다.

○ △△△ 위원 : 자원순환에 때문에 가신다는 얘기인데, 환경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인터넷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전부 소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하려고 하는 자원순환센터는 소각장이 아닙니다. 소각장은 은평 플랜트에 있습니다. 48톤의 소각장이 있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재가 민선 1기 때 참여예산에 참여해서 그 소각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소각장을 수없이 다니고 논문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포에 교육하는 장소도 있는데 거기만 가도 구의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소각하는 여기를 꼭 가야 되냐 그것도 재무건설위원회 물론 들어갈 순 있겠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행정복지 위원들이 하는데 재무분과가 가야 하는가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사한다면 인정 못할 것 같습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제로폐기물을 2019년 발표를 하였고,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제로 운동을 진행 중인 싱가포르의 정책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 매년 갈 때마다 경험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행정복지라고 해서 행정복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별 민원사항이 있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재무로 가실 분들도 계셔서 서로 간의 교환적인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그러면 내년에 가시면 됩니다.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싱가포르의 우수점은 수처리 기술입니다. 물을 재활용 기술입니다. 또한 음식폐기물을 박테리아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2015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은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은 은평 플랜트입니다. 기존에부터 은평뉴타운 지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데는 재활용시설입니다. 분리시설. 이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얘기하는 제로에 가까운 환경처리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를 가야..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복지, 재무로 갈 수 있습니다.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야합니다. 올해 이렇게 일정이 뻑뻑한데 꼭 이곳을 꼭 가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겁니다.

○ △△△ 위원 : 기대효과를 보면 우리 구 환경 플랜트의 추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소각장을 더 활용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서북 3구

MOU를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담당하겠다는 건데, 이 환경 플랜트의 추가적인 활용을 모색하겠다는 건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 환경 플랜트 추가 활용방안은 엄청 민감한 사안입니다. 뉴타운에서 난리 날 텐데. 이걸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 자원 들어오는 것도 난리인데..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인터넷상이나 여행사에서 물어본 사항인데, 우리 구가 소화할 수 있는 게 47톤인데 이 양을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톤이라도 처리가 안 돼서 누적이 되면 하루하루 양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환경시설을 보면 하루에 최하 800톤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제일 작은 시설이. 그리고 몇천 톤씩 할 수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환경 플랜트를 더 지어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는 47톤을 소화할 수 있는데 왜 47톤이 안 오냐 하는 것을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행정복지, 재무위원님들이 환경 플랜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문 사항이 있어서.

○ △△△ 위원장 : 환경플랜트는 소각장입니다. 은평구 마포 서대문구가 협의한 것이, 은평구는 자원 재활용, 마포는 소각, 서대문구는 음식물로 가는 건데 갑자기 은평 뉴타운 주민들이 재활용 자체도 반대하는데 여기다가 환경 플랜트 추가는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사기가 아니라..

○ △△△ 위원장 : 이걸 빼세요. 진짜 난리 납니다.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처음에는 물순환 처리장소도 봤습니다. 그런데 물을 정화하고 하는 시설은 접목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곳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용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고자..

○ △△△ 위원장 : 못한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는겁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니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만약에 불거지면 자원재활용센터 내일 아침에 덮어질 겁니다. 이런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 △△△ 위원 : 우리구 환경 플랜트 추가 활용방안이 너무 모호합니다. 부지를 쓰겠다는 건지 소각장을 확대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명확히 안 들어간 상황이니..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소화하지 못하니..

○ △△△ 위원 :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은평구 내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여기 갔다 오면 하루에 47톤을 늘려서 쓸 수 있는 건가요?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늘려서 쓰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가 그날 소각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 △△△ 위원 : 그것은 우리 환경 플랜트를 방문해서 해결할 일입니다.

○ △△△ 위원 :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각을 못 하는게 아니고, 지을 때 은평뉴타운 것만 소각하기로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쓰레기를 양주나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나요? 그 용량이 사실은 은평뉴타운에서 반대해서 못하는 것이고, 그러한 시스템은 마포가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 견학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건설에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컨셉이 다를뿐이지 자원순환에 대한 행정청의 의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관심도와 학습 정도에 따라 한번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사업의 크기보다도 갔다 왔을 때 싱가포르를 이럴구나 마포도 가보는 방향으로 은평에 하나의 관심도이니,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 위원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 관련과 자원순환문제는 엄연히 별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녀오셔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자체 내에서 한 분야 자원순환시설 이 부분을 빼더라도 다른 행정 분야에서 시간이 여유로운가요? 타이트한가요?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타이트합니다.

○ △△△ 위원 : 그렇죠? 그럼 그걸 빼고 싱가포르에서 다른 지역으로 시간을 할애하세요. 이곳은 다녀오셔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다른 분야에서 심도 있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 △△△ 위원장 :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이 부분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맨 처음에 주민복지 분야 방문할 때 티라타나를 보니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게 은평구의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르고 노인들과 아동들이 생활하면서 거주와 단순 돌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은평구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출장경비 범위 내에 일정 수행과 관련하여 오늘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출장여비에 통역비 섭외비가 포함된 사항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계획서상에는 비용이 의원 1인 기준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불투명합니다. 책정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경비 부분에 관해서 지난 금요일 설명해 드렸는데, 국외 경비가 어떻게 운영되냐하면, 일비 숙박비가 한꺼번에 의원님들 일일 6박7일에 대한 경비를 뽑게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를 가지고 업체선정 공고를 냅니다. 예를 들어 1인당 200만 원을 가지고 공고를 내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이 정도 금액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회 후 선정된 업체에 방문지를 요청합니다. 요청한 방문지를 업체에 기관 5개 이상 섭외를 요청합니다. 그 외 추가되는 경비는 업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가적인 경비 없이 전체금액을 통으로 넘겨줍니다.

○ △△△ 위원 : 결산보고도 그렇게 뭉뚱그려서 됩니까?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일비 식비 숙박비를 가지고 결산을 뽑는데 그 금액으로 운용을 합니다.

○ △△△ 위원 :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실제 사용 비용과 다른데, 실제 사용 비용이 일비 식비 숙박비가 달라집니다.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그 금액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겁니다.

○ △△△ 위원 : 실제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식비를 이렇게 썼다 어떤 의원이 30만 원 썼다. 그런데 그 식비를 30만 원 쓴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통역비도 쓰고 다른 금액을 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투명한 게 아닙니다.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예를 들어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것으로, 여행사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다른 기관을 방문하고자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데, 이럴 경우엔 식비 등을 낮추는 방안으로 여행사가 운용합니다.

○ △△△ 위원 : 어쨌든 실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 △△△ 위원 : 실제로 운용은 그렇게 하더라도 현지에서 사용 내용이 있을겁니다. 나중에 결산 보고할 때 각 지역마다 쓴 비용이 다르겠지만 그것을 결산보고에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뭉뚱그려서 하는 것인지..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국외 출장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일비, 식비, 숙박비는 원칙은 정산을 하는 게 옳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금액을 정산하기 불편하니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급지를 기준으로 해당 급지가 1급지에서 3급지에 따라 일비 식비가 얼마, 숙박비는 정해진 금액의 85%를 지급하면 사후정산을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그렇게 되어있고 항공료는 티켓을 가지고 사후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비, 식비,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니 정해진 금액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 △△△ 위원 :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통역비 등의 경비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행 시 일비 식비 등의 정산이 불편합니다.

○ △△△ 위원 : 그게 불편하지만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위원 : 정산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정산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가면 하루에 일비 얼마 해당 지역에 따라서 식비는 얼마 숙박비는 얼마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항공료는 티켓으로 금액 산정 후 사후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 △△△ 위원장 : 그럼 일비 식비 숙박비는 통으로 해서 운용을 하고 항공권은 나중에 정산하겠네요?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나중에 출발할 때 항공권을 끊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 달라지는 것은 사후정산합니다.

○ △△△ 위원 : 실제 여행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여행사에

서 하지 않습니까? 여행사는 다 체크를 하니 여행사에 달라고 하면 그 내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산보고를 할 때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는데, 여행사에 얘기하면 그때그때의 모든 정산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위원장 : 제 소견이지만 영업을 뛰는 사람들인데 이익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은평구 공무원이 다니면서 비용을 지출한다면 모르지만 여행사는 일정 금액을 맡아서 이익을 남기는 건데 그걸 알려줄까요?

○ △△△ 위원 : 아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푸트라자야를 보고 싱가포르 시티갤러리에 가서 보신다고 하셨는데 가서 보실 수 있고 이야기를 듣고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한 견학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오히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관련 학과들이 서울시로 연수를 와서 서울시의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을 연수를 받고 갔습니다. 서울시에서 연수를 받고 간 그런 곳에 가서 연수를 한다는데 이게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시티갤러리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시면 되시겠지만, 그냥 서울시 역사문화박물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푸트라자야 같은 경우는 신도시입니다. 양쪽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서 본 다음에 오히려 서울시가 싱가포르에 전수해준 도시재생을 한다는 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의문이 들어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제가 두 가지 질문드렸는데 여비 말고 앞에 것 티라타나 가는 것은 답을 못 들었습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스와미흠 노인복지시설은 주거, 치매 치료, 주간탁아소, 주간 재활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이며, 두 번째 가는 곳은 말레이시아 사회의 전 범위 기부금을 총당해서 고아원, 아동진료소, 어르신요양원, 여성보호소,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은평구의 은평천사원같은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할지는 천사원쪽에서도 대표님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서로 보고 와서 의논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제가 자료 좀 본 것에는 여기가 타원형식으로 노인이 아동을 돌보고 아동이 자라서 노인을 돌보는 공동체형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민간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사회복지시설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은평구에서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은

평구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다 보조금 받아서 운용하는 거잖아요?

○ △△△ 행정복지위원장 : 민간적인 것도 있겠죠. 하지만 보조금에 문제가 아니라 마을에서 함께하는 고아원, 아동진료소에서 서로 간에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적인 것입니다.

○ △△△ 위원 : 모델이 전액 기부금으로만 운영되고, 무급자원봉사자들만 운영이 되는 게 우리랑 굉장히 다른 점인데 여기 가서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 기부로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마을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 △△△ 위원 : 그건 그런데 그 시설운영이 전액 기부를 통해서 운영되고, 무급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은평구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벤치마킹할 수 있냐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기부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 행정복지위원장 :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은 운영 면에서 비영리단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다양성, 마을과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오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 △△△ 위원장 : 추가로 의견 제출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을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심사의견서 작성)

○ △△△ 위원장 : 참, 돼지 관련 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심사의견서에 보면 감염병 및 안전사고의 적정성, 이런 건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여행사에 문의 결과 예방접종을 하거나 현지에 유행하는 병은 없는 거로 파악됩니다.

○ △△△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심사의견서 수합, 위원장에게 제출)

○ △△△ 위원장 :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 △△△ 위원장 : 오늘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한 번 더 고려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수정, 보완해서 재무건설 안건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결을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